

일본문화에 있어서 사람을 신으로 숭앙하는 풍습에 대한 재해석 (人を神に祭る風習再考)

고마츠 가즈히코(小松和彦)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연구부 교수

사람을 신으로 숭앙하는 풍습재고: ‘야스쿠니의 신’의 신앙적 배경을 탐구한다

일본인 또는 일본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신(神) 관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의 신 관념은 일본인이라도 용이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최초로 착목했던 것은 일본의 민속학의 할아버지로 불리는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의 「인간을 신으로 숭앙하는 풍습(人間を神を祀る風習)」(『定本柳田國男集』 第五卷, 筑摩書房, 1969)에 논의된 것을 발전시킨 것이다.

야스쿠니의 문제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입구로서 인간을 신으로 숭앙하는 풍습.습속, 즉 ‘인간신 신사(人間神社)’에 착목해 왔다. 지금은 정쟁(政爭)의 온상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성립의 배경을 들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야스쿠니 신사 이전’의 문제로서, ‘야스쿠니 신사’의 기층에 흐르는 신 관념의 구체적인 표상으로서 일본의 ‘인간신’의 역사를 모색하는 시도였다. 이 성과의 하나가 한국어도 번역된 『일본인은 어떻게 신이 되는가(민속원, 2005, 김용의 역)』이다(小松和彦, 2001, 『神になった人びと』, 京都: 淡交社).

앞으로의 과제

1. 추도, 위령, 현창, 기억 등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로 맞닥뜨려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고대에서 근대까지 구체적인 인물의 인생과 그를 섬기는 신사의 창립의 경위를 검토하는 것에 의해, 일본인의 신 관념.세계관, 그리고 사상의 일단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한국인의 신 관념, 추도, 위령, 기념장치와의 비교연구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Q&A

Q1. 야스쿠니 신사의 분사. 분령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A1. 분사.분령이 일본의 어떤 시기와 어떤 전통인지의 기원의 명확하지 않으나 근대 이후의 문제임

Q2. 2 차대전과 관련해 야마토 전함 등 사물신(事物神)의 사례는 일반적인 것인가?

Q2. 일본의 전통적 신 관념 중 사물(物, もの), 즉 사람이 만든 물건은 영이 있다고 믿음(99神).

Q3. 야나기다 구니오 저서에 대한 재고의 의미와 살아있는 신(한국의 경우, 조상신, 샤머니즘) 등

Q3. 사후 50년(50回忌, 弔い上げ(ともらいあげ))와 사자(死者)의 기억의 관리자는 누구인가의 문제(보통의 죽음과 다른 지벌신의 문제) 등